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 사사기 11:34-40

- 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 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라
- 35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 36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 37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 38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 39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습이 되어
- 40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의 딸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입다를 가장 먼저 나와 환영한 사람은 입다의 무남독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의하면 입다는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면서 탄식합니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입다의 딸은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여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산 위에서 두 달 동안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고 올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달 후에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대로 딸에게 행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입다가 실제로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입다는 동물이 먼저 나올 경우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며, 입다의 딸은 번제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평생토록 헌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은 번제로 바쳐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장수를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명백히 사람, 특히 여성이 먼저 나와 자기를 맞이할 것을 알고 서원한 것입니다. 아마도 입다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이 번제로 바쳐지지 않았다면 입다의 탄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결혼도 안 한 딸이 평생을 성직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겠지만 옷을 찢으며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라고 절망할 것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입다의 딸이 두 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한 것, 해마다 여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하는 풍습이 생긴 것도 입다의 딸이 실제로 번제로 바쳐졌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입다의 딸이 성직자가 되었다는 주장은 중세 때에 한 랍비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번제로 바쳐진다는 것이 너무 잔인하게 여겨진다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입다는 자기가 한 서원대로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가 한 서원을 지킨 입다의 헌신과 그 딸의 희생은 우리가 본 받을만한 것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입다가 바친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서원

시편 15편에 의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축복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서원을 지켰습니다. 입다보다 더 돋보이는 것은 그의 딸입니다. 그녀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번제물이 되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이들의 신실함과 희생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처럼 숭고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 우리들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악한 서원을 드렸습니다. 입다가 탄식한 이유는 여종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자기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종을 아무 죄도 없이 태워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입다가 딸에게 한 말에도 그의 이기적인 성품이 드러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잘못된 자기가 해놓고 딸을 탓합니다. 자기 서원 때문에 번제가 되어 죽을 딸의 고통은 생각도 안하고 외동딸을 잃게 된 자기 아픔만 헤아리고 있습니다.

입다가 이와 같이 이기적이고 악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신제사를 금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입다는 암몬 왕과의 대화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과시했습니다. 그런 입다가 어떻게 인신제사를 금한 율법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도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은 박식한데 신약에는 약하다든지, 성경은 많이 아는데 교리에는 무지하거나 상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은 풍부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입다는 역사는 알았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입다가 생각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섬기는 그모스 신과 같이 지각이 없어 선악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보상해주는, 탐욕적이고 계산적인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상 입다는 전쟁을 위해서 서원을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입다를 통해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전쟁의 승패가 자기 능력과 정성에 달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과 서원을 통해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발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은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공식이나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스스로 하신 말씀을 뒤집기도 하시고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에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서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번제물이 되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번제를 바치는 대신 회개하라고 아버지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입다는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라고 탄식했지만, 하나님도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잘못된 서원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와 그의 딸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면서 거래를 하려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아무리 정성어린 헌신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죄라면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번제를 드리기 위해 딸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 창세기 22:9-19

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네가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숫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후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와 같이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네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셨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가 또 그 말씀을 취소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입다와 그 딸처럼 원칙이나 공식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약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 목숨을 더 소중히 여겼던 성도에게 언약 백성다운 믿음을 갖도록 연단하시기 위해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덜 중요하고 일시적인 말씀을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주저함이 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유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라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언약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 없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들을 내어 드리는 정성에 보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어진 축복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들까지 바치려 한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현실적인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업, 즉 보상은 바로 하나님이 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자신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고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딸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바치느냐,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받아 내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철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순종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서원에 대해

전도서 5:4-6을 읽겠습니다.

❖ 전도서 5:4-6

- 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 5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 6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내가 실수로 서원한 것이라고 변명해봐야 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학생 때에 선교단체에서 알게 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 그 형제는 큰 고민 중이었습니다. 예전에 선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니 취업을 해야 하는지 서원대로 선교사로 헌신해야 하는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야 자기가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서원한 것 같아 후회스러웠던 것입니다.

또 다른 청년은 집에서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목회자가 되게 하겠다고 서원해서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목회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도 하도 아이가 안 생기는 바람에 절박한 심정으로 했던 서원이라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원의 나쁜 예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원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서원대로 갚으셨습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서원을 드립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서원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서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급한 일이 생겨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거나, 사고를 치고서는 하나님께 뉘우침을 부탁하는 것도 서원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만 무마해주시면 이제 정신차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서원. 그런데 우리는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내가 서원을 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도 기억 못할 서원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못된 서원이라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입다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서원을 할 필요가 느껴지신다면, 감정에 떠밀려서 충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서원이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지,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인지를 면밀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원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서원 자체가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 받을만한 의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험한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세상 끝날 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장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무엇으로 갚아 드리겠다고 조건을 내세울 이유가 있을까요? 죄인이었을 때도 아낌 없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혹시나 하나님이 내 정성이 불만스러우셔서 기도를 거절하실까 염려할 이유가 있을까요?

서원이 가진 위험성은 은혜의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나를 위한 어떤 계획도 없는 하나님을 내 정성으로 설득해 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평안의 기도

❖ 빌립보서 4:6-7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자녀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의 선함과 열심 뿐만 아니라 부족함과 허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혹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무엇인가를 조건으로 내걸 필요가 없습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을 충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상을 주지 않으셨어도 만족했던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 나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은, 응답 여부에 관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립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킬만큼 간절히 기도한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지연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다양한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나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이 시지만 그 자녀와의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깊이 있게, 열심히,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무더위로 또 힘겨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 염려 없이 감사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 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해볼 질문들

1. 서원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서원은 어떻게 갚으셨나요?
2. 자신의 신앙 생활이 신앙이 아닌 공식이나 원칙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나요? 또는 반대로 공식과 같은 신앙에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3.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아무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